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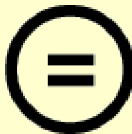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편지 분석을 통한 유영철의 범죄심리 연구

- 융의 ‘그림자’이론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곽 대 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경찰사법학과 범죄심리전공

권 현 정

2015

석 사 학 위 논 문

편지 분석을 통한 유영철의 범죄심리 연구

- 용의 '그림자'이론을 중심으로-

권 현 정

지도교수 광 대 경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일

권현정의 범죄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주심 이 윤 호 (인)

주심 최 응 렬 (인)

주심 광 대 경 (인)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경찰사법학과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범죄심리의 일반적 특성	5
1. 생물학적 요인	5
2. 환경적·사회적 요인	6
제 2 절 용의 ‘그림자’이론	7
1. 그림자의 정의와 특성	7
2. 그림자의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	10
3. 그림자의 창조성과 파괴성	12
4. 그림자의 극복	14
제 3 절 선행연구	15
제 3 장 유영철 사건의 전개과정	19
제 1 절 유영철의 유년기와 이후의 삶	19
제 2 절 유영철의 범행과정 및 재판결과	21

1.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	21
2.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	24
3. 직업여성 살인사건	26
4. 수사 및 재판결과	28

제 4 장 편지내용에 나타난 유영철의 범죄심리 분석 33

제 1 절 유영철 편지에서의 그림자 인식	33
1. 범죄자로서의 이중인격적 그림자	38
2. 정치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유영철의 그림자상	44
3. 여성에 대한 유영철의 그림자	51
제 2 절 유영철의 범죄심리분석 결과	55
1. 사회집단의 그림자투사로 인한 어긋난 선택	55
2. 왜곡된 자기실현	57

제 5 장 결 론 65

참고문헌 68

ABSTRACT 70

- 표 목 차 -

<표 - 1> 유영철 편지의 전체목록과 심리적 측면 34



- 그림 목 차 -

<그림 - 1> 그림자의 모습	8
<그림 - 2> 그림자의 창조성과 파괴성	1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1명의 부유층 노인과 윤락 업소 여성들을 망치나 칼 등을 사용하여 각종 잔혹한 방법으로 연쇄살인을 하였다. 이 사건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후 한국사회를 다시 한 번 충격과 경악 속에 빠뜨렸다. 사건 이후 시민들과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유머 시리즈처럼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을 전면으로 등장시킨 드라마나 영화들도 심심치 않게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 및 학자들은 연쇄살인범의 범죄심리학적 특성과 범행수법 및 사이코패스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논문들의 대부분은 범죄행위와 사건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영철이 전형적인 연쇄살인범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의 목적은 유영철의 편지분석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억압되고 무의식적인 충동으로 존재하는 악(惡)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악이 인간 내면의 어두운 측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악을 극복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에 있다.

이처럼 유영철의 편지 내용분석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이 제시한 인간의 어두운 측면 즉, ‘그림자’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와 ‘악’에

관한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융은 인간의 어두운 측면을 ‘그림자’ 라고 명명하였다. 만약 당신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당신의 결점을 비난할 때 마음속에 심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당신 그림자의 일부를 발견한 것이다(이부영, 1993: 173).

인간이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만 드러내고 살아도 지장이 없다면 사실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지닌 존재이다. 그림자조차도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림자 또한 자아와 동일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가진 모습 중에서 사회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자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그림자가 되는데, 이 그림자의 특질은 없어지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 차근차근 쌓여간다. 이 수치스러운 부분이 쌓이게 되면 그림자만의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며, 그것이 너무 커질 경우에는 통제할 수 없는 파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¹⁾

악은 인간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융은 악이란 선의 그림자라고 주장한다. 즉, 악이란 그 자체로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어둠 속에 남아 있는 그림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융은 인간의 삶에서 악의 현상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 인간의 삶을 변질시키고 있지만 악의 근본적인 본질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김성민, 1998: 143).

이 논문에서는 유영철의 편지를 토대로 유영철의 범죄행위에서의 심리상태와 그의 인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그가 지나치게 극단적

1) 로버트 존슨,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에코의 서재, 2007)

인 행위를 하게 된 사회적·심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인간사회의 어두운 반려자인 그림자의 이중 인격적 특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을 활용하여 유영철의 범죄심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살인중독」(이은영, 2005)에 담긴 편지를 통하여 유영철의 심리상태와 그의 인격을 고찰하려고 한다. 또한 유영철이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된 사회적·심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인간사회의 어두운 반려자인 그림자의 이중 인격적 특질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유영철의 범죄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칼 융의 그림자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연쇄살인 사건 발생과 관련한 인간의 범죄심리의 특성을 고찰해 본다. 이를 위해 생물학적·사회적·환경적 요인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둘째, 유영철의 편지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을 받은 후 교도소에서 한 월간지 기자와 주고받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영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 즉, 유영철의 성장과정과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의 삶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셋째, 편지 내용분석을 통해 유영철의 범죄심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

편지에 나타난 범죄자로서의 악의 현상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림자가 유영철의 내면에 있는 악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해 어떻게 악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편지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분석하여 인간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의 논문과 학술지, 잡지, 언론보도 자료, 서적 등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분석해 낼 수 있도록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유영철의 편지는 교도소에서 한 월간지 기자와 주고받은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언론기사, 학술지, 판결문 등을 통해 유영철 사건의 전개과정과 재판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영철이 작성한 편지를 분석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내용분석 방법(contents analysis method)을 사용하였다.

또한 편지에 나타난 범죄자로서의 악의 현상들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의 논문, 학술지, 서적을 통하여 유영철의 내면에 있는 악과 그림자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범죄심리의 특성

1. 생물학적 요인

이탈리아의 외과 의사 롬브로조는 범죄인에 대하여 생물학적 인류학적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로서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²⁾

그는 범죄자의 두개(頭蓋)를 해부하고 체격을 조사해 본 결과 범죄자에게는 일정한 신체적 특징이 있음을 알아냈다. 이러한 신체적인 특징은 원시인에게 존재하였던 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이어져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범죄인의 특징을 지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범죄인 전체 수의 약 3분의 1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범죄자가 정해진다는 것은 모순적 측면이 강하다. 또한 그동안 반사회적 행동에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쌍생아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전이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일반화할 만큼 인정받지는 못했다(이수정·허재홍, 2004).

이후 쌍둥이의 범죄 성향의 일치여부와 양자의 범죄성이 친부모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범죄자의 가계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즉, 범죄성이 유전된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

2) 생래적 범죄인이란 범죄인 가운데 기회범죄인이나 걱정범죄인과는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변질징후를 가진 변종의 인간으로서 환경 여하를 불문하고 운명적으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이어졌지만 그렇다는 결론은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연쇄살인범들의 조상 중에서도 살인범 등의 범죄자나 정신질환을 앓았던 자가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DNA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는 유전자학이나 신경계를 연구하는 신경학의 발달로 폭력적인 범죄자 특히 연쇄살인범 등 강력범죄자들은 뇌의 구조와 기능, 특정한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체계, 또는 성호르몬의 분비량 등이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이유로는 임신 중에 산모가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와 약물 중독,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들고 있다(표창원, 2005). 그러나 범죄원인의 결론은 유전과 같은 선천적 요인은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성장하면서 받은 교육방식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김경옥·이수정, 2005).

2. 환경적·사회적 요인

연쇄살인범을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인은 성장기에서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충격적인 경험이다. 이들 대부분의 경우가 가족들 중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 및 알콜 중독자가 있으며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받게 되고 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김경옥·이수정, 2005).

성장과정에서의 폭력을 당한 경험은 아이들의 감정과 충동조절, 학습능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 행동 자체를 학습하게 만든다. 특히, 유년기에 가족에 대한 충분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고 성장한 아이들은 유년기가 지난

후인 8~12세 시기에 부정적 성향이 정착화되고 심각해진다(표창원, 2005).

열두 살 이후에는 자아 정체감과 성격이 형성되는 시점으로 이 시기에 겪는 자존감의 상실, 박탈감, 심각한 갈등 등은 부정적인 사고와 사회에 대한 불신, 인간에 대한 반감, 타인과의 단절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학습과 정서 발달에 장애가 발생하여 생긴 좌절과 실패는 사회적 반감으로 이어지게 되며, 마침내 극단적인 반사회적 사고를 형성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혼, 연애의 실패, 범죄로 인한 수감생활 등과 같은 외부적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일탈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 중 극히 소수가 연쇄살인범이 된다.(김경옥·이수정, 2005).

이처럼 연쇄살인범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은 생물학적 요인과 성장과정에서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용의 ‘그림자’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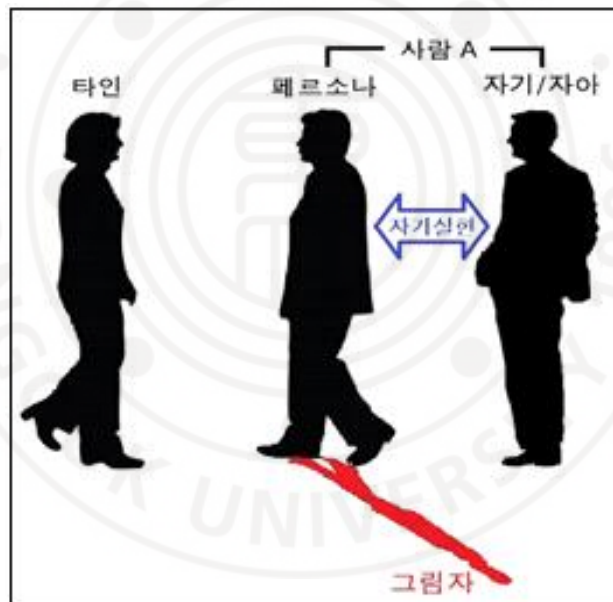
1. 그림자의 정의와 특성

무의식 속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내가 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실수를 저지르게 한다. 즉, 내가 지향하고 있으며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순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자기의 행동이 모순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정당하며 타당하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이러한 그림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림자란 바로 ‘나’의 어두운 부분, 즉 무의식적인 측면에 있는 또 다른 나이다. 선한 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악한 것이 그 뒤에서 짙게 자리를 잡게 된다. 그것이 선한 의지를 뚫고 나올 때 나는 악한 충동에 휩싸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위선자와 이중인격자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이부영, 1999: 86).

<그림-1> 그림자의 모습



인간의 자아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특성에 스스로 여러 요소를 더하여 형성해 놓은 정신적인 복합체이다.

융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자기 자아에 대비되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이부영, 1999: 41). 예컨대 너무나 근엄하고 성실한 정치인이 어느 날 청소년 성매매로 잡혔다. 성실하고 근엄한 것이 그의 원자아이며, 청소년 성매매를 욕망한 마음은 그림자이다. 배트맨 시리즈에서 배트맨이 자아라면 조커는 그림자이다. 조커가 없다면 배트맨의 존재 이유는 없다. 따라서 조커를 가장 갈망하는 이는 사실 배트맨일 것이다. 쌍둥이 형제의 이중인격 및 잔혹성을 그린 소설 <쌍생아>나 낮에는 의사이나 밤에는 포악한 괴물로 바뀌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의식적 인격과 무의식적 인격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그림자의 좋은 예이다.

2014년 8월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지검장의 사건이 있었다. 그는 지나가는 여고생을 보고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다. 그것도 몇 차례나 말이다. 한 학생이가 그것을 목격하고 신고하였고 결국 그는 제주지검장에서 사퇴하였다. 제주지검 검사장은 제주도에서 최고의 권력자이다. 그런 그는 스스로에게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정의, 도덕이라는 잣대를 항상 들이밀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제주지검장으로서 엄청난 압박과 부담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만큼 커져버린 자신의 그림자를 다루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림자를 다루지 못했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 사건 역시 인간의 이중인격을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그림자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나 스스로 거부하고 억압해온 내면이다. 즉, 의식적으로 적절하게 통합되지 않은 부분이자 멸시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융의 그림자 개념은 성악설(性惡說)이니 성선설(性善說)이니 하는 이원적(二元的)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닌 움직이고 변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실체이다.

이러한 그림자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이부영, 1998: 93).

첫째, 그림자는 의식화되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림자의 대부분은 개인의 무의식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림자는 의식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림자는 인격이 낮은 차원에 속한 정신적 요소이다. 따라서 의식적인 인격보다 더 쉽게 집단적 감염에 잘 노출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

셋째, 그림자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외부로 투사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부정적인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며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림자는 열등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창조적인 특성도 있다. 자아와 그림자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창조적인 것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2. 그림자의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

그림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개인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적 측면이다. 개인적 측면에서의 그림자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들이 수용되지 않고 거부되거나 억압되어 그에게 개인적 어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집단적인 측면에서의 그림자는 선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저급하고 어두운 정신적인 것으로서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둠이다(이부영, 1998: 90-91).

이러한 그림자는 흔히 외부에 투사된다. 그리고 투사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림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투사는 자아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되는 것이다.

자아는 투사된 대상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면서 무의식적 내용이 투사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경우 격렬한 감정의 반응이 나타난다. 따라서 투사 대상에 대하여 집착하게 된다.

이와 같은 투사는 개인적 투사와 집단적 투사로 나뉜다.

개인적 투사는 대체로 자아와 유사한 대상에게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친한 동성 친구, 형제, 자매, 직장동료, 상사, 율케와 시누이 사이 등에서 이유 없이 부정적인 마음, 혐오감, 불쾌감이 든다면 그림자의 투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개 그림자의 투사에 의한 오해 때문이다. 모든 개인관계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무리를 만들어 생활하다 보면 그 무리 속에 공통적인 가치판단으로 하나의 기준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의식에서 빼버린다. 따라서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 안에 그 집단에 공통된 그림자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그림자의 투사가 보통 가까운 같은 부류의 사람을 향하는 것처럼, 집단적 그림자의 투사도 마찬가지이다(이부영, 1998: 88-89). 예를 들면 2012년 8월경, 한 연예인이 약 10여 년간 기부를 한 사실이 퍼지자 오히려 수많은 악플이 달렸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숨겨왔던 기부사실과 함께 밝혀진 그의 과거사와 가족사들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것은 과연 누가 ‘악’의 축이 되는 것이고, 누가 ‘선’의 축이 되는 것일까? 선과 악의 문제를 떠나서 대중들은 왜 그런 악플을 다는 것인가? 이러한 악플에는 익명성과 함께 중시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집단체제라는 것이다.

연예인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동일시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서 동일시되는 인물이 현실에서는 선망의 대상으로 남았을 때 마음 속 한 구석에 열등감은 그림자로 남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투사가 되었을 때 악플과 같은 형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집단적 그림자는 인간을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만드는 심리적 기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라는 보호체계가 대중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열기는 더욱 거세지며 집단적 편견을 강화시켜 타 집단과의 경쟁을 하도록 만들게 된다.

3. 그림자의 창조성과 파괴성

융은 겉보기에는 열등한 그림자 속에 창조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이부영, 1999: 53). 즉, 인간의 내면에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어두운 그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송강호가 주연한 <반칙왕>이란 영화가 있다. 주인공 대호는 어리숙하고 소심한 은행원이다. 그는 지각을 자주 하고, 회사에서는 미운오리새끼이다. 부지점장은 매일 그를 괴롭힌다. 그러나 대호는 직장인이라는 페르조나에 눌러 있다.³⁾ 이러한 페르조나가 강화되어 상사가 싫어도 앞에서는 웃으며 분노를 참는다. 이는 그로 하여금 수치감, 괴리감 등을 더 쌓이게 할 뿐이다. 이것이 그의 그림자이다. 각종 심리적 콤플렉스가 그 한 모습이다.

어느 날 대호는 우연히 방문하게 된 체육관에서 레슬러 ‘반칙왕’ 울트

3)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의 연극에 사용하던 가면을 의미하나 융이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 타이거마스크의 포스터를 보고 무엇인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열떨
결에 레슬링을 배워보겠다고 한다. 매일 이어진 힘든 훈련이지만 연습을
할수록 자신에게도 가슴 속 깊이 감춰 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음을 알
게된다. “이번 시합에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 여기 링에서만큼은 내가
최고다. 여기서만큼은 누가 뭐하고 해도 내가 왕이다.” 소심한 은행원 대
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파괴의 그림자, 폭력의 그림자를 링 위에서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다시 삶의 균형을 맞추고
은행원이라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 - 2> 그림자의 창조성과 파괴성



즉, 그림자는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다. 단지 저급하고 낮은 것,

적용이 안되고 미개한 것, 다루기 어려운 것일 뿐이므로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이은봉, 2003).

그러나 위의 예에서 만약 대호가 페르조나의 끈을 놓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거나, 본인보다 아래 위치에 있는 부하직원과 마주쳤다면 그의 그림자 즉, 평소에 쌓였던 억압된 감정은 폭발되었을 것이다. 이는 정상적 사회생활을 이끌던 의지나 인성을 파괴한다. 또한 불안에 휩싸이고 우울증에 걸려 세상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텔레비전의 각종 공상과학영화에는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고, 인공기계 영웅은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악을 물리친다. 그러나 그 행위에 전혀 윤리적인 책임성이 없고 오직 파괴와 승리에 대한 쾌감만 나타난다. 이러한 그림자의 파괴성은 인간정신이 황폐화되고 있는 현대의 문제점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이부영, 1999: 92).

4. 그림자의 극복

그림자를 극복하려면 우선 그림자에 대한 인식 즉,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한다(이부영, 1999: 192). 그리고 다른 곳으로 투사된 그림자를 자아에게 다시 돌려 자신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투사를 거두고 그것들을 의식하고 인식함으로써 그림자와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부영, 1999: 79).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로소 감정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그제야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자를 인식하고 의식 속에 통합시킬 때 삶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고 더욱 넉넉해지며 조화롭게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림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민담으로 흥부전을 볼 수 있다(김성민, 2001: 373-406). 흥부전은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놀부에게 나타난 악은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 도덕적 열등성이다. 이것은 흥부가 지나치게 선하려고 해서 다른 인격의 측면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는 그림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을 보고 흠친 것이 아니냐며 억지를 부리며 자신의 그림자를 그에게 투사한다.

흥부는 흥부전에서 착한 인물로 나타나지만 사실 그에게는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비굴한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는 집안을 일으킬 생각 없이 그저 놀부에게 빌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이것이 흥부의 그림자이다. 흥부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하고 선하게만 살려고 했다.

그러나 내면에는 놀부가 갖고 있는 악한 모습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흥부는 이러한 자신의 고통을 피하려 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해 나갔다.

예를 들면 쫓긴 장사를 하여 가난을 현실로 받아들인 모습과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어 날아가게 하는 장면에서 그러하다. 민담에서 동물은 우리 내면에 있는 본능적 요소를 나타내는데 그 요소들을 억압하지 않고 이끄는 대로 하여 자기(self)에 접촉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흥부는 박씨를 심어 많은 보물을 얻었다. 만약 흥부가 자신의 그림자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림자는 계속 존재를 알리려고 애쓰고, 의식과 통합되기 위해

많은 갈등을 일으키려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림자를 인식하고 본능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악을 극복하고 그림자들은 창조적으로 변화되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제 3 절 선행연구

연쇄살인 범죄는 개인적 동기라기보다는 사회구조 속에서의 소외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한 사회적 동기가 대부분이다.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분노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겨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흉악분위기 조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범죄 모두를 단순히 사회적 문제로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아무리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좌절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로 이어가는 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하였고, 이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김상균은 한국의 연쇄살인사건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범죄행위와 현상들을 통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을 조망하였다(김상균, 2005: 3-36).

그는 첫째, 연쇄살인범의 심리학적 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성과를 재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둘째, 외국 연쇄살인범의 일반적인 특성과 비교하여 한국의 연쇄살인사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연쇄살인의 정의 및 특성, 제학자의 분류기준 등을 유영철의 연쇄살인과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유영철의 연쇄살인에서의 범행수법과 범인인증을 분석하였다.

그는 특히 유영철의 연쇄살인은 샤리야르 신드롬의 다섯 가지 특성과

Rossmo의 분류의 올가미형, 즉각공격형, Holmes 분류의 사명감형· 쾌락형· 권력형, Dietz 분류의 정신병리학적 성적가학증, Ressler분류의 체계적 범죄자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 있어서의 핵심은 한국의 연쇄살인에 대한 연구 성과의 현실을 감안하여, 연쇄살인에 대한 구체적이며 특정한 부분에 대한 연구보다는 일반적인 기초연구의 성격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박선영은 광범위한 여성범죄의 개념 정의 대신 최근 문제로 떠오른 여성연쇄살인범에 대한 분석을 여성학적 혹은 젠더적 입장에서 재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목표로 하여 경찰청 등에서 발표한 연쇄살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여성범죄학적 접근과 여성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박선영, 2009: 7-37). 또한 유영철 연쇄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연쇄살인범의 범죄형태의 파악이나 검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여성의 비극적 상황을 사회에 각성시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여성연쇄살인범은 사회적 약자가 여성에 대한 증오심과 성적인 쾌락을 해소하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른 경우이며, 경제적 이유보다는 자신의 소외감에 대한 보상심리를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병리현상과 여성에 대한 비인격화는 경찰을 비롯하여 법집행기관의 수사력 확대 및 강화 등 법제도의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배려가 근본적인 치유책임을 강조하였다.

권성훈은 월간조선 객원기자 이은영이 유영철과 주고받은 편지를 중심으로 유영철의 글쓰기에 나타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성격을 연구하였다(권성훈, 2011: 3-28).

이를 위한 연구 방법에는 유영철의 반사회적인 심리를 알 수 있는 분석도구로서 정신병질 장애검사 도구 PCL-R을 사용하였다.

그는 유영철의 PCL-R상의 반사회적인 심리적 성격의 문제 요인으로 첫째, 대인관계, 둘째, 정서성, 셋째, 생활양식, 넷째, 반사회성 등을 세부 항목으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코패스의 문제 요인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정신분석이론의 ‘자아방어기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영철의 경우는 억압으로 인한 본능적인 욕구와 초자아와의 갈등, 자아와 세계 사이에서의 올바른 타협형성과 절충이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자의식을 통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욕구 충족이 이상 행동인 연쇄살인과 토막 살인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연구는 유영철의 글쓰기에서 그가 갖고 있는 반사회적 사고를 밝힘으로써 글쓰기 분석을 통하여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 연쇄살인범의 내면의식과 구조를 진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 3 장 유영철 사건의 전개과정

제 1 절 유영철의 유년기와 이후의 삶

유영철은 아버지의 거둬진 사업실패와 노름으로 무척 가난했기 때문에 유영철은 부모가 원치 않았던 아이였다. 이러한 사실은 외할머니(82)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영철이를 낳고 생활고로 너무 힘들어서 딸이 용알이를 하고 있는 영철이를 죽여 버리려고 했다고 해. 나중에 그 애가 교도소에 들락거렸을 때 내가 말했어. 어미가 자식한테 그런 마음을 품어서 네가 죄를 받는 거다.”라고 말했다(이은영, 2005: 17). 유영철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군인이었으나 귀국 후에는 술과 노름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알콜 중독자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화를 자주 내고 폭력적인 거친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툼을 하였다. 첩을 두어 어머니와 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두 집 살림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 이혼을 하였다. 아버지는 기분이 나쁘거나 만취하면 아들에게 망치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했다.

유영철은 친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여섯 살 경에 아버지가 있는 서울로 상경했다. 유영철은 친어머니와 헤어져 계모의 밑에서 여동생과 함께 지내게 되었으나 계모에게 자주 폭행을 당했다. 그가 초등학교에 두 번 입학한 것은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초등학교를 몇 달 다니다가 어머니와 살겠다고 가출을 했기 때문이다. 계모의 폭행에 시달리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다른 초등학교에 재입학을 한 것이다.

1978년에 입학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선생님들의 평가는 그런대로 평이했다. 유영철은 애어른이라고 할 정도로 어른스러웠고, 청소도 인사도 잘 하는 아이였다. 친구들이 말하는 유영철은 호기심이 많고 욕을 싫어하며 그림과 조각에 소질이 있는 아이였다.

1984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유영철은 암전했던 초등학교 시절과 달리 많이 밝아졌다. 1학년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의협심이 있었고 활발하였으며, 2학년 때는 책임감이 있고 학교규칙을 잘 지켰으며, 3학년 때는 근면 성실한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래를 좋아했으며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다고 한다.

그런데 범죄행위는 이 시기부터 시작된다. 유영철의 동창생은 유영철이 중학교 2학년 때 LP관을 훔쳤으면서도 어차피 불법복제판인데 훔치면 어떠냐며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선도부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폭력의 정도는 심했다. 또한 유영철은 친구들에게 여자에 대한 집착, 자신감이 넘쳐 “내가 원하는 여자는 언제든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이은영, 2005: 19). 1987년 5월에는 예술고등학교 시험을 보았으나 색맹에다 성적도 좋지 않아 실패하였고 직업학교인 국제공고에 입학하였다. 직업학교에서는 음악 밴드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문학에 몰두하는 등 잘 보냈다.

1988년에 국제공고 2학년 때 야간주거침입절도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1991년에 특수절도 혐의로 수감되었다. 이후 2003년까지 절도, 강간 등으로 7년간 수감생활을 반복하였다. 첫사랑인 아내 황모씨와 결혼하였지만, 다시 교도소 출입이 시작되자 결국 교도소 안에서 이혼 통보를 받았고 양육권도 빼앗겼다. 이 때 전부인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대인기피증도 생겼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

었다고 한다.

연쇄살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2003년 9월부터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공덕동 집을 나온 시점부터 시작되었다(한국일보, 2014. 9. 12).

이처럼 유영철은 평범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계모 슬하에서의 성장,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폭력과 주정, 가난, 아버지와 형의 간질로 인한 사망 등이 그러하다. 이는 유영철로 하여금 자신감의 결여와 사회와의 단절, 박탈감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범죄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유영철의 범행과정 및 재판결과

1.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

유영철은 그의 범죄행각에 염증을 느낀 전처로부터 재판상 이혼을 당하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마저 빼앗겼다. 이혼재판 과정에서 전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것과 궁지에 몰린 자신을 저버린 것에 대한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극도의 자괴감으로 전처와 아들을 살해할 마음까지 품었다. 그러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 대상을 바꿔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자신이 적대감과 증오심을 갖고 있던 부유층과 교인들에게로 향하였다.

어린시절 세들어 살던 집주인이 세입자인 할아버지나 아주머니를 무시하며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며 부유층에 적대감이 쌓여왔다. 즉, 유영철

의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은 부유층에 대한 반감과 맹목적인 증오심을 갖게 하였다. 그리하여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 오던 교회부근에 사는 부유층들을 골라 잔인하게 살해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였고, 그동안 쌓아 둔 사회에 대한 불만, 절망, 분노 등을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⁴⁾

유영철은 비참한 현실이 자신의 부정적이고 충동적인 무책임한 행동 탓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모두 공평하지 못한 외부적인 상황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였다.

아래에서는 유영철의 편지는 아니지만 1), 2), 3)의 사건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왜곡된 분노와 그늘진 인식 태도로 인해 나타난 그의 어두운 자아를 엿볼 수 있다.

1) 신사동 노부부 살인사건

2003년 9월 24일 수요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숙대 명예교수인 이모씨 부부(남 72세, 여 68세)가 둔기에 맞은 시신으로 자신의 집에서 발견되었다.⁵⁾ 유영철은 교회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집안을 살피며 코팅 목장갑으로 바뀔 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에 누군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층으로 내려와 안방 문을 열어젖히고 이를 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였다. 말을 듣지 않자 재크나이프를 피해자의 목을 찔러 쓰러뜨리고 해머로 수회 내리쳤다. 피해자의 부인이 돈을 꺼내 주려하자

4) 2004고합972,973, 1023판결

5) 조선일보, 2003년 9월 25일; 경향신문 2003년 9월 25일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그 때까지 살아있는 피해자를 해머로 재차 내리쳤고 피해자들을 두부손상으로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⁶⁾

2) 구기동 일가족 피살 사건

신사동 명예교수 부부 살해사건이 발생한지 보름 만인 2003년 10월 9일 종로구 구기동의 강모씨(여, 85세)의 단독주택에서 강모씨와 며느리 이모씨(여, 60세), 장애인인 손자(남, 35세) 등 일가족 3명이 둔기로 살해되었다.⁷⁾ 유영철은 영광교회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신사동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무장갑을 끼고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한다. 집안의 동태를 살피면서 다시 코팅 목장갑을 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입구 왼편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강모씨(여, 85세)를 발견하고 해머로 가격하여 기절시킨 후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사망한 줄 알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거실로 비틀거리며 나오자 재차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렸다. 거실로 들어가던 중 인기척을 느껴 1층 거실로 내려오던 피해자(여, 60세)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밀고 거실의 오른쪽 소파로 데려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소파 쪽으로 밀어 넣었다. 배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다시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후에 2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인기척을 느끼고 내려오던 손자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대고 2층 복도로 끌고 가 해머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쓰러뜨렸다. 두개

6) 2004고합972,973, 1023판결

7) 조선일보, 2003년 10월 17일; 경향신문 2003년 10월 17일, 문화일보; 2003년 10월 17일

굴이 부서져 뇌가 빠져 나올 정도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각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⁸⁾

3) 삼성동 노부인 피살사건

구기동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인 2003년 10월 16일, 유모씨(여, 60세)가 자신의 단독주택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많이 흘리며 의식이 없는 채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⁹⁾ 유영철은 행복교회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침입에 위의 두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무장갑을 끼고 담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가 집안의 상태를 살피면서 코팅 목장갑으로 바꿔 끼고 재크나이프를 든 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화장실 안쪽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유씨의 목에 재크나이프를 들이댄 채 거실 오른쪽에 있는 안방 안의 다용도실을 지나 화장실로 끌고 들어왔다. 그리고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다시 한 번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집을 빠져 나왔다. 피해자의 아들에 의해 삼성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00경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¹⁰⁾

2.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

유영철은 2004년 4월 13일 밤, 동대문구 황학동 274 삼영빌딩 1층 약

8) 2004고합972,973, 1023판결

9) 조선일보, 2003년 10월 17일.

10) 2004고합972,973, 1023판결

국 앞에서 비아그라와 음란 CD를 팔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피다가 영업을 마치고 남은 물건들을 들고 자신의 승합차 쪽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경찰을 사칭하여 신분증을 들이대며 현행법 위반으로 함께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유영철의 신분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를 살려두었다가는 그간의 살인 및 경찰사칭 행각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살인을 결심하였다. 유영철은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처럼 안심시켰다. 그리고 수갑을 채운 채로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리게 하고 갖고 있던 다른 수갑을 사용하여 조수석 등받이 쇠기둥에 연결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오피스텔로 들어와 자신의 해머와 재크나이프, 장갑 등을 검은색 큰 가방에 넣어 승합차로 돌아왔다. 같은 날 밤 인적이 드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정형외과 주차장으로 왔다. 가방을 멘 상태에서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나와 승합차 오른쪽 문을 열고 조수석 바로 뒤쪽에 올라탔다. 그리고 코팅 장갑을 낀 채 재크나이프를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 목 등을 무자비하게 찔렀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를 뒷 자석 밑에 가로방향으로 눕혀 놓고 옷가지를 덮으려고 하였으나 사망한 줄로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자 다시 한 번 재크나이프를 피해자의 다리 등을 찌르고 가방에서 꺼낸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살인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혈혼이 남자 이를 없애기 위해 방화를 하였다. 피해자의 두 손에 뚜렷하게 나타난 수갑자국을 지워버리는 한편, 피해자의 신원도 파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손목을 절단하여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월미도 방파제 바위틈에 버림으로써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함과 동시에 승합차를 소훼하였다.¹¹⁾

3. 직업여성 살인사건

2003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수차례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8명을 살해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버팔로 신발을 신은 사람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되었다. 유영철은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신발을 폐기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 고립감과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던 중 2003년 12월에 전화방을 이용하여 만나게 된 동거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졌다. 그러나 동거녀가 자신의 전과와 학력, 직업, 가족관계가 거짓말임을 알고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것에 대하여 심한 말다툼을 하였다. 동거녀를 강제로 묶고 성관계를 맺다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겁을 먹은 동거녀가 만남 자체를 극도로 기피하였으며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에 배신감을 느껴 동거녀를 살해하고 싶었으나 자신과의 통화내역 등 자료가 남아 있어 살해하게 되면 곧바로 범인으로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죽이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 대신 전화방이나 출장마사지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실종이 되더라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의 특성상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으며, 동거녀 또한 같은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유인한 후 살해하여 배신감을 보상받기로 마음먹었다.¹²⁾

11) 2004고합972,973, 1023판결

12) 2004고합972,973, 1023판결

이러한 유영철의 행각에서 어머니와 계모 그리고 이혼한 부인으로 인해 생긴 여성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욕구, 비뚤어진 욕망,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사랑 등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직업여성 살인사건을 보면 전화방 도우미와 출장마사지사로 일하는 11명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호출하거나 유인하여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었다. 2004년 3월 15일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 전화방에서 피해자와 통화하여 서대문구에서 만나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성관계 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칼과 톱, 가위 등으로 목을 자르고 사체의 형태를 못 알아보도록 토막을 낸 후 자신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잘게 부수었다. 그리고 10여 개의 검은 비닐봉투로 싸고 4개의 큰 검정비닐에 분산하여 넣은 뒤 택시를 타고 마포구 서강대 도서관 뒷산 등산로 나무 아래와 서대문구 봉원동 봉원사 근처 한방병원의 신축 공사 현장 주변에 암매장을 하였다.¹³⁾

이 사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살해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계획성과 범행은폐를 위해 직업여성을 호출할 때는 그 전의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였고, 사체를 유기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하고 작은 여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11명 중 단 한명과 성관계를 맺었으나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도려내어 변기통에 버렸다. 또한 암매장한 후 담아간 비닐봉투 역시 자신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모두 회수해 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둘째, 범행수법의 발전과 반복된 중독성이다. 사체 절단의 기술 및 속

13) 서울중앙지법2004.12.13., 선고 2004고합 972, 973, 1023 판결

도의 발전으로 범행의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

셋째, 끔찍한 사체 훼손과 잔인성에 관한 부분이다. 사체 절단, 간과 뇌를 계속하여 섭취한 점, 눈과 아킬레스건과 같은 특정부위의 세밀한 해부, 가슴과 골반, 음부 등 여성의 중요부위에 대해 집착적인 가학행위를 보여주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소지품 중 일부를 갈취하였다. 자신을 배신한 동거녀와 동명이인이었던 피해자 김모씨는 살해의 과정에서 더욱 심한 고통을 주었다. 살해 후에도 더 잔인한 방식으로 사체를 훼손하였다.

넷째는 사체를 절단하고 유기할 때, 어떤 특정노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놓고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살인을 하나의 의식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유영철의 살인사건은 부유층에 대한 증오감과 소외감, 선(善)에 대한 왜곡된 인식, 권력에 대한 콤플렉스, 여성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왜곡되고 변형된 유영철의 자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수사 및 재판결과

1) 범행수법 및 특이사항

유영철 사건에서는 범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첫째, 교도소 내에서부터 살인계획을 생각하였다. 출소 한 다음에는 살인에 관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모아 연구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삼아 연습하였다. 범행도구는 망치를 사용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목표를 가격했을 때 치명적인 파괴력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그의 무자비함을 들 수 있다. 필요 이상으로 해머를 휘두른 점이나 자폐증 환자부터 고령의 노파까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범행 은폐를 위한 노력이다. 족적을 지우고 방화를 하였으며 다리의 털이 빠져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지 끝단을 양말 안에 넣는 등 세심하게 노력을 하였다.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 강남과 강북을 왔다갔다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고의로 강도의 범행으로 보이기 위해 돈을 훔치거나 금고를 텅 흔적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씩 필요 이상 가격한 것도 연쇄살인이 아닌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속이려는 목적이었다(이은경, 2006)

2) 범행동기

경찰발표에 의하면 유영철 범죄는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적개심, 증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유영철은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정환경, 경제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반사회적 태도를 바탕으로 이혼, 수감생활, 동거녀의 배신 등의 불행을 사회일반의 책임으로 전이했다. 그리고 이를 합리화면서 수감 중에 범의를 다져왔다.¹⁴⁾

이 중 부유층 노인들을 살해한 동기는 어린 시절 교회 옆에 위치했던 정원이 딸린 부유한 집을 동경하였으나, 자신은 경제적, 가정적 환경으로

14) 서울중앙지법 2004.12.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좌절을 당하자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질되었다. 나아가 경미하다고 생각한 범죄에 대해 잇달아 중형이 선고되고 장기간 복역을 하게 되자 출소 직후 사회에 대한 분노표출의 일환으로 범행한 것이다.

직업여성에 대한 살해 동기는 교도소에서 부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아들의 양육권도 빼앗겼으며, 출장마사지로 일하던 김모씨와 3개월 사귀다가 청혼했으나 전과자에 이혼남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전처를 살해하려 했지만 전처가 맥주에 김을 구워먹는 것을 보고 연민의정을 느껴 포기하고 분풀이로 전처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이진동, 2006). 그리고 아버지와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자신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막연히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다는 충동을 갖게 되었다.

3) 범행대상

유영철은 살인하기 쉬운 노인과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노인과 실종된다 하더라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질렀다. 즉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며 저항을 하여도 손쉽게 제압이 가능한 대상을 상대로 살인을 저질렀다.¹⁵⁾

피해자의 직업 및 성별을 살펴보면 신사동 사건은 모대학 명예교수부부였고 나머지피해자는 전업주부이거나 직업이 없었다. 황학동 사건의 경우는 노점상이었으며,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대부분 출장마사지사과 전화방 도우미였으나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예비신부도 포함되어 있다(김은주, 2005)

15) 서울중앙지법 2004.12.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4) 범행장소 및 범행시간

계획적인 살인자는 지속적인 살인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유영철이 살인을 한 장소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 현장을 살펴보면 노인을 살해한 곳은 부유층이 사는 곳으로 인적이 드물고 넓은 정원이 있어 바깥 쪽에서 집안의 내부상황을 알 수 없는 집을 대상으로 삼았다. 전화방 도우미와 출장마사지사를 살해할 때에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범행의 장소로 택했다(이진동, 2006).

범행의 시간은 복잡한 출·퇴근 시간이 아닌 사람들이 적은 식사시간이나 사람들의 활동이 왕성한 시간을 피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노인 혼자서 집에 있는 점심시간이나 오후 시간을 선택했다. 부유층 노인살인의 경우 오전 10시~11시 사이, 직업여성의 경우는 밤이 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23:00~05:00)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전화방 도우미나 출장마사지사의 경우 특정한 시간은 없다.(이은경, 2006)

5) 재판결과

유영철은 2004년 8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2004년 12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명으로 20명을 살해한 점이 인정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161조 제1항, 제118조, 제145조 제1항, 제40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었다. 유영철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검찰측은 1심에서 무죄

판결된 동대문구 이문동 살인사건에 대해 상소하였다. 하지만 이 건은 기각되었고,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1심과 동일하게 형이 확정되었다. 유영철은 사형선고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¹⁶⁾



16) 서울중앙지법 2004.12.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제 4 장 편지내용에 나타난 유영철의 범죄심리 분석

제 1 절 유영철 편지에서의 그림자 인식

유영철은 사회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모두 외부의 원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의 편지에는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난,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원망, 그로 인해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좌절, 배신의 감정들에 대한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의 유년시절을 살펴보면, 그도 다른 가정처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할 만한 적절한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핍은 고등학교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열등감은 그로 하여금 통제하기 어려운 증오와 분노를 유발시킨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유영철의 대부분의 편지에서는 분노의 그림자가 엿보인다. 일반적으로 분노는 정상적으로 느끼는 타당하고 건전한 감정이다. 그런데 유영철의 그림자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왜곡된 감정이다. 이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건전하고 정당한 분노는 피해의식처럼 자신이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분노의 그림자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영철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기보다는 분노의 그림자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의 분노는 개인적인 가족사를 넘어서 가진 자들 전체에 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분노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편지 내용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분석을 통하여 융의 그림자 이론에서 제시된 유영철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보고자 한다.

<표 1> 유영철 편지의 전체목록과 심리적

날짜		키워드	심리적 특성
(1)	2004. 8. 24	결혼생활, 죽음, 외로움, 신앙생활, 아들, 증오심, 분노	사회 전체에 대해 막연히 -비난하고 비판한다. -과거나 미래에 산다. -두려움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
(2)	2004. 9. 1	모자, 마스크, 아들, 처자식, 외로움, 재결합	-좌절된 기대, 실망, 지배의 상실. -이중인격적, 은폐, 떳떳한 자아에 대한 욕망.
(3)	2004. 9. 4	부자, 신, 시기심, 질투심, 한(恨)이 서린, 외로움, 고독, 절망	-복수를 추구한다. -무기력하게 격분하고 상처 입은 자아이다. -원망, 책임전가.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통제를 벗어나 있고 세상을 비웃으며, 정벌적이다.
(4)	2004. 9. 7	고위층, 먹물근성, 소외계층	-공격적이다. -남의 변화를 요구한다.
(5)	2004. 9. 13	어머니, 가난, 돈, 처와의 이혼, 펜	-좌절된 기대, 실망, 지배의 상실을 가장한다. -얼마나 옳고 정당한지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6)	2004. 9. 15	아내, 환경	-자기감정을 이유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잘못된 원인으로 여긴다.
(7)	2004. 9. 30	꿈, 실패, 굴욕, 아들, 악마, 상처와 아픔, 배신, 낙오자, 아들의 원망, 지침, 공허감, 허무함	-좌절된 기대, 실망, 지배의 상실을 가장한다. -얼마나 옳고 정당한지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그 원인으로 여긴다.
(8)	2004. 10. 13	자살,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여자들, 분노	-순간적으로 열 받는 상태에 빠져든다. -자기감정을 이유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잘못된 원인으로 여긴다.
(9)	2004. 10. 15	야뇨증, 빈뇨증, 조울증, 평범, 살인 본능, 애정결핍, 좌절, 자신의 부족함	-무기력한 상태에서 격분만 하고 상처입고 무서워하는 자아이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통제를 벗어나 있고 세상을 비웃으며, 징벌적이다.
(10)	2004. 10. 22	사회를 죽였다, 계급 현상,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	-얼마나 옳고 정당한지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그 원인으로 여긴다. -순간적으로 열을 받는 상태에 빠져든다.
(11)	2004. 10. 25	아들 생각, 천사, 실망, 분신(分身), 좋은 아빠, 다음 생(生)	-좌절된 기대, 실망, 지배의 상실을 가장한다.

(12)	2004. 10. 31	사회에 대한 분노, 죽음, 고독감, 태생적 고독과 결핍, 정(情)	-누가 상처를 받은 분노를 터 뜨리고 만다.
(13)	2004. 11. 4	사회부조리, 자살	-좌절된 기대, 실망, 지배의 상 실을 가장한다. -누가 상처를 받은 분노를 터 뜨리고 만다. -자기감정을 이유로 남을 비난 하고 남을 그 원인으로 여긴다.
(14)	2004. 11. 7	사람, 부자, 가난, 죄, 뺨, 선(善), 악(惡), 차 가운 유년시절	-무기력한 상태에서 격분만 하고 상처입고 무서워하는 자아이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통제를 벗어나 있고 세상을 비웃으며, 정벌적이다. -얼마나 옳고 정당한지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15)	2004. 11. 15	왜곡된 사고력, 무책 임, 계속되는 좌절감	-좌절된 기대, 실망, 지배의 상 실을 가장한다.
(16)	2004. 11. 17	히틀러, 똑같이 살자	-얼마나 옳고 정당한지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17)	2004. 11. 21	가난, 지독한 외로움, 계모, 혼자만 놀았다, 부자들에 대한 분노, 악(惡), 영양실조, 마 감, 허무, 절망, 나라	-남을 비난하고 남을 그 원인 으로 여긴다. -순간적으로 열 받는 상태에 빠져든다. -자기감정을 이유로 남을 비난 하고 남을 그 원인으로 여긴다.

(18)	2004. 11. 25	~줄 알았다, 믿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좌절된 기대, 실망, 지배의 상실을 가장한다.
(19)	2004. 11. 26	세상의 못된 것만 봐왔다, 살인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엄청난 분노일 뿐이다, 범죄혁명, 불공평하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통제를 벗어나 있고 조소하며 징벌적이다. -얼마나 옳고 정당한지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20)	2004. 12. 17	두 개의 인격체, 희망 없는 삶, 후진 삶, 출생의 조건	-좌절된 기대, 실망, 지배의 상실을 가장한다.
(21)	2004. 12. 26	삶을 끝내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격분만 하고 상처입고 무서워하는 자아이다. -좌절된 기대, 실망, 지배의 상실을 가장한다.

* 출처: 이은영, 살인중독, 2005.

* 출처: 김하락, 2014

<표 1>의 항목들은 유영철의 편지에서 핵심어를 추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들에 대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그의 편지에서 나타나는 범죄심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이와 더불어 융의 그림자 이론의 4가지 항목인 그림자의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 그림자의 창조성과 파괴성, 그리고 그림자의 극복과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1. 범죄자로서의 이중인격적 그림자

다음의 편지에서는 유영철이 아들을 자신의 자아와 동일시할 만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걸 엿볼 수 있다. 비록 범죄자일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못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1) 자아와 그림자의 갈등으로 인한 이중인격성

어제 현장에서는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느냐고 욕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얼굴을 드러내 놓지 못하는 건 제 하나뿐인 아들 녀석 때문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잘 놀아 주던 아빠가 갑자기 소식이 끊겨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주위에서 TV보고 “네 아빠다” 할까봐서요. 아들 녀석 친구 부모님들은 많이 알게든요.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서 제 얼굴을 기억할 텐데 TV에서 보고 혹시나 애들 부모님이 ‘왕따’ 같은 따돌림을 줄까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다. 어떻게 저리도 당당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욕도 많이들 하시는 데 그래도 전 갈 때까지는 씩씩한 모습 보이려고 합니다. 밝힐 거 모두 깨끗이 밝혀 원혼들의 한을 달래 주고 싶습니다. 제 아들 이름도 그래서 ‘준’입니다. 오직 굳세고 건강하게 크라고 제가 직접 지어 줬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놓아야 되는 데 한 오라기 희망이었던 아들 녀석을 정말 잊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이은

영, 2005: 41)

-2004. 9. 1. 유영철-

유영철 역시 보통의 아버지와 다름없는 하나의 사회적 역할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이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주된 이유이다.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역시 자신의 자식은 끔찍하게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 자식의 소중함은 전혀 모르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

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행동과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다.**”고 하더라도 “**갈 때까지는 썩썩한 모습 보이려고 합니다.**”는 부분은 상호 모순되는 이중 인격적 행동이며, 정신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아들 녀석 친구 부모님들이 많이**”알까 두려워하고, “**왕따를 당할까봐**”걱정인 것은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자기의 검은 그림자를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썩썩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은 유영철이 비로소 자아의 존재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매주 토요일이면 잘 놀아 주던 아빠**”, “**오직 군세고 건강하게 크라고 제가 직접 지어 줬었는데**”라고 하는 부분은 유영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인 동시에 사회에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하는 ‘나’가 잘 나타난다. 칼 융은 이를 페르조나¹⁷⁾라고 하였는데 집단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아빠들의 역할과 다름없는 듯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모든 것을 놓**

17) 집단정신에서 빌려온 판단과 행동의 틀이다. 집단이 개체에게 요구하는 도리, 본분, 역할, 사회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 그 집단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할 여러 유형이다.

아야 되는 데 한 오라기 희망이었던 아들 녀석을 정말 잊을 수 있을 지 자신이 없네요.”라는 것은 부모로서의 페르조나의 상실을 괴로워하며 좌절하고 페르조나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의 그림자 이론에는 창조성과 더불어 파괴성도 존재하는데 이 편지글에서는 이 모두가 명확하게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이론에는 그 극복에 대한 언급도 존재하는데 위 편지글에서는 자아의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부분은 보이나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편지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림자의 이중인격자적 특성이 잘 나타나있다.

다음에 언급할 편지에서는 아들의 모습에서 거꾸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들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사례로 분석되므로, 아래에서는 2004년 10월 25일에 작성한 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아직까지도 아들을 생각하면 생(生)의 온갖 기갈(飢渴)이 다 채워지는 것 같은 생각에 젖어요.....저 같은 인간에게 그런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가끔 안 믿어질 정도로 그 아인 제게 천사였어요. 물론 자랑거리는 못 되지만 내 아이가 내게 천사처럼 이쁘고 귀엽게 비쳤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그런 와중에도 내 아이한테 한 번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아들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친구들에게 아빠가 너무 잘 대해주는 모습이 질투 났는지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거친 어휘’들을 쓰더라구요. 나중엔 여자 친구 가슴까지 심할 정도로 주먹으로 쳤어요. ‘나는 저 나이 때 안 그랬는데 애가 왜

이럴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부모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라 하던데 ‘좋은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못할망정 왜 이런 아픔들을 주고 가는지(이은영, 2005: 103).

-2004. 10. 25. 유영철-

“아들을 생각하면 생(生)의 온갖 기갈(飢渴)이 다 채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은 자식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는 아버지로서 갖는 사회적 역할은 못하면서 아이는 자기와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가끔 안 떨어질 정도로 그 아인 제게 천사였다.”라는 부분은 유영철이 자식에 게만큰은 범죄자로서의 잔인함은 보이지 않는 이중 인격적 특성을 보여 준다. 또한 사회와 가정에서 충실한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로서 갖는 자식에 대한 이중적인 모순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융에 의하면 때로는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그림자를 자식이 대신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림자가 투사되기 전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아들이 아버지의 그림자를 의식 혹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삶으로 흡수함으로써 아버지의 그림자를 닮는 경우가 있다. 놀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투사하여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중하거나 몹시 걱정하고 통제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융의 그림자 이론은 다음의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이부영, 1999: 97).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거친 어휘들을 쓰더라고요. 나중엔 여자 친구 가슴까지 심할 정도로 주먹으로 쳤어요.”라고 하면서 “내 아이한

테 한 번 실망”했다는 것은 본인의 어린 시절에 계모와 부모에게 받은 학대, 버림받은 두려움, 상처 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아들에게 투사하며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 아이한테 한 번 실망**”했다는 것은 그림자 투사에 의해 나타나는 자식에 대한 실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그림자에 대한 콤플렉스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저 나이 때 안 그랬는데 애가 왜 이럴까?’라고 의문을 품는 것은 투사된 그림자를 본인 역시 갖고 있음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모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라 하며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인 아버지로서의 페르조나를 강조하고 있으며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된 기대로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편지글에서도 페르조나를 그리워하며 페르조나의 상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편지에서는 전반적으로 2004년 9월 1일에 작성된 편지와는 다르게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며 아이를 걱정하고 통제하려는 것까지 나타난다. 이는 용의 그림자 이론 중 그림자 ‘투사’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으나 그 투사된 그림자상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노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에서 언급할 편지에서는 2004년 9월 1일, 2004년 10월 25일의 편지와는 달리 본인의 이중인격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것을 파괴하는, 즉, 그림자의 파괴성 측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자신의 열등한 인격의 그림자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의 심리가 드러나는 사례이다.

이하에서는 2004년 10월 15일에 작성한 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그림자의 투사와 파괴성

조울증이 심해 밤과 낮이 되면 성격이 뚜렷하게 바뀌고 그래요. 전 낮에는 일반인들처럼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낮엔 평범한 남자가 밤엔 살인마가 되고, 낮에는 일상적인 지성(知性)을 보이다가도 밤에는 엄청난 살인의 본능을 찾았어요.

웃으며 유인하여 잔인하게 죽이고 사체를 묻은 후에 엄숙한 의식을 표하고, 저의 이런 양극화가 뚜렷한 이율배반적인 분출은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꼭 해답을 찾는다면 햇빛보다도 더 애정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아닐까 해요. ‘애정결핍’ 같은 거요. 그런데 그 애정도 집념이나 집착이 너무 강해 증오와 분노로 누르려고만 그랬던 것 같네요. ...학창시절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한 제가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세상의 아름다움만 봐오고 좋은 것만 봐온 사람이 이렇게 현대의 살인마가 될 수 있을까요?(이은영, 2005: 78).

-2004. 10. 15. 유영철-

“밤과 낮이 되면 성격이 뚜렷하게 바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중인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인격의 원인을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꼭 해답을 찾는다면 애정결핍”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경멸당하고 모욕당하며 사랑받지 못했던 것은 자신에게 절대로 회복 못할 타격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 애정마저 집착이 강해 증오와 분노로 누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상황에서 격분만하고 상처 입은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엄청난 살인의 본능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가 타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자기를 고통스럽게한 세상에 복수하려고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창시절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한 제가**”라고 하며 스스로 허위의 자아를 설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화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영철은 학창 시절에 선도부 위원이었다. 규칙을 어기는 친구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고, 선생님을 대신해 선생님께 대드는 친구에게도 벌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은영, 2005: 23).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만 봐오고 좋은 것만 봐온 사람이 이렇게 현대의 살인마가 될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의 심리 현상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고 살았다.**”는 것은 열등한 측면인 그림자를 극복하기 위해 과대 포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위의 편지에서는 유영철이 이중인격적인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엄청난 살인의 본능을 찾았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림자의 파괴성을 볼 수 있다.

2. 정치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유영철의 그림자상

유영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의 탓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난과 어린 시절의 학대, 내성적 성격,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계속된 좌절감과 무기력감 등은 그가 갖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유영철은 이러한 자신의 열등한 그림자를 사회에 투사하며 오로지 비난과 비판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열등감이 외부로 투사되면 상대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림자는 자신이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자가 외부에 있는 대상에 투사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그림자를 밖에서 본다. 그래서 똥 묻은 개가 자기의 더러운 것을 겨 묻은 개에게 투사하므로 자기는 깨끗하고 상대방 개에게 묻어 있는 겨가 똥처럼 더럽게 보이게 된다(이부영, 2014: 125).

이러한 그림자의 투사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 투사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일시적으로나마 편해진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본인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고 나쁜 것은 모두 타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이부영, 2014: 127).

용에 의하면 그림자의 투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크든 작든 자주 일어나며, 그림자는 보통 열등하고 부정적인 성격의 이미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투사된 대상에게 향하는 감정은 늘 좋지 않은 부정적인 성질을 갖는다(이부영, 1999: 96).

이러한 그림자의 투사현상은 아래에서 제시할 2004년 9월 7일의 편지, 2004년 9월 13일의 편지, 그리고 2004년 10월 22일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1) 열등감으로서의 내면의 그림자

귀찮아서 모두 인정하고 들어와 버렸지만 못 배운 제가 보기에 이 나라 사법 수사력은 어이가 없네요. 저는 이 나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은 소위 **먹물근성부터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 배워서가 아니라 **사회 소외계층과의 골만 깊어지게 만드는 그 권위의식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먹물보다 못 배운 사람들 중에 더 훨씬 훌륭하고 착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왜 자꾸 망각하는지. **범법(犯法)을 밥 먹듯이 저지른 놈이 이런 소리하니까 개가 다 웃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저 같은 인간이 봐도 이 나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통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일화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 법체계는 투명성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이은영, 2005: 52).

-2004. 9. 7. 유영철-

“귀찮아서 모두 인정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못 배운 제가 보기에도”** 라는 것은 자신의 학력 콤플렉스에 대한 열등감의 표현이다. **“먹물근성부터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학력에 대한 그림자의 열등성의 표현이다.

“제가 못 배워서가 아니라 사회 소외계층과의 골만 깊어지게 만드는 그 권위의식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라며 걱정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정의를 지향하고 주장하는 형사사법계의 일원인 듯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법(犯法)을 밥 먹듯이 저지른 놈이 이런 소리하니까 개가 다 웃는 것 같네요.”라고 하며 자신의 열등한 인격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 같으나 **“저 같은 인간이 봐도 이 나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통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자기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용의 그림자이론에 의하면 그림자는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위 편지글에서는 개인적 측면으로 갖는 열등성으로서의 그림자가 외부에 투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사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하여 매우 공격적이고, 통제를 벗어나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림자의 창조성과 더불어 파괴성도 존재하는데 이 편지에서는 이 모두가 명확하게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이론에는 그 극복에 대한 언급도 존재하는데 이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편지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림자의 투사 현상이 잘 나타나 있으며 투사 대상은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음에 언급할 편지에서도 투사현상은 일어나지만, 투사 대상은 ‘돈이 말하는 세상’ 즉, 부유층이다. 아래에서는 2004년 9월 13일에 작성된 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이은영 씨.

펜으로 꿈은 이루셨나요? 이 사회의 모순된 병리가 펜으로 고쳐지던가요? 펜이 아닌 돈이 말하는 세상, 그만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저 같은 인간이 정당성을 위장하고 세상 시끄럽게 만드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보내주신 <LAST>의 내용처럼 그런 세상이 판치는 이 세상 뭐가 좋다고.

저 같은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미리 떠나 주는 것도 예의인 것 같은 데 사고 칠 거 다 치고 가는 게 죄송스러울 뿐이네요(이은영, 2005: 56).

-2004. 9. 13. 유영철-

“**펜으로 꿈은 이루셨나요?**”라고 묻는 것은 자신은 낮은 학력으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상대방도 역시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열등기능으로서의 그림자가 외부에 투사되어 투사의 대상 즉,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회의 모순된 병리가 펜으로 고쳐지던가요?**”이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해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펜이 아닌 돈이 말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득권은 가진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유로 “**그만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라고 묻는 것은 자신처럼 사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 같은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열등한 그림자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미리 떠나 주는 것도 예의인 것 같은데 사고 칠 거 다 치고 가는 게 죄송스러울 뿐이네요.**”라는 것은 진심이 아닌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위 편지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인적 측면으로 갖는 열등감으로서의 그림자의 투사현상이 잘 나타나있다. 투사 대상은 돈이 말하는 세상이고 이것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고, 조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융의 그림자 이론에서 제시한 그림자의 창조성과 파괴성, 그리고 그것의 극복 모두가 명확하게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에 언급할 편지에서도 투사현상은 일어난다. 투사의 대상은 역시 사회와 부유층으로 향해 있지만, 2004년 9월 7일의 편지, 2004년 9월 13

일에 작성된 편지보다는 투사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자의 파괴성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는
2004년 9월 13일에 작성된 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그림자의 투사와 파괴성

배짱이가 놀고 있는 동안에도 땀을 흘리고 있는 개미들처럼 묵묵히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입니다. 제 인격형성이나 본바탕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저였는데 피비우스의 띠 같은 이 사회의 부조리가 제 인격까지 바꿔 놓더라구요.

원한이 있어서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성(性)을 빼앗으려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라도 제가 밝힌다면 전 사회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그만들 왈가왈부했으면 합니다. 사회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자식들에게 눈치 보여 일부러 약을 먹어 가면서까지 떠나고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동반자살하기가 일쑤고 주부가, 임신부가, 결혼을 앞둔 여자가, 미성년자들이 수단방법 안 가리고 돈에 미쳐가도 이 나라가 잘사는 나라인가요? ‘카스트 제도’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한심한 계급현상은 이 사회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은영, 2005: 98).

- 2004.10 .22. 유영철-

“제 친구들입니다.”라는 것은 마치 자신이 친구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친구가 없었다는 것은 편지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

있다. “제 인격형성이나 본바탕은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자신은 정상이었지만, 좌절과 불안만 안겨 준 “이 사회의 부조리가 제 인격까지 바꿔놓더라.” 라고 하며 사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의 파괴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 대한 살인”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바라보는 세상이란 온통 부조리로 가득 차있고, 좋은 것은 전혀 없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에 자신의 열등하고 분노에 찬 그림자를 덮어씌우며 그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 채 일부분을 보고 비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며 사회를 저급하게 보고 있으며, “신부가, 결혼을 앞 둔 여자가, 미성년자들이” 순수해야 할 사랑이나 연애감정을 “수단방법 안 가리고 돈에 미쳐가” 더럽히는 “이 나라가 잘사는 나라인가요?”라고 따지듯 묻고 있다. 이것은 마치 자신만큼은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며, 본인의 범죄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심한 계급현상”인 카스트 제도가 “이 사회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비난하며 자신의 행위는 이러한 사회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지도층과 재벌’을 비난하는 사람 역시 그들과 동일한 지도층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러한 탐욕과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이부영, 1999: 116-117). 유명철 역시 경찰을 경멸하고 증오했으면서도 경찰을 사칭하여 이용하였다는 것은 그의 모순된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위의 편지에서도 투사현상은 일어나지만 위의 그림자의 투사 대상은

여전히 사회와 부유층이다. 또한 자신이 죽인 것은 사회라고 한 측면에서 그림자의 파괴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그 극복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의 편지들의 투사 대상은 사회와 부유층이었지만 다음에 언급할 편지에서의 투사 대상은 ‘여성’으로 향해 있다.

아래에서는 2004년 10월 13일에 작성된 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3. 여성에 대한 유영철의 그림자

유영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의 탓과 여성의 탓으로 돌린다.

특히, 여성에 대한 좌절감과 배신감은 그가 여성에게 갖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어머니와 계모에게 받은 학대, 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한 이혼, 범죄경력과 이혼남이라는 사회적 굴레로 인한 동거녀의 배신 등이 그러하다.

유영철은 이러한 자신의 열등한 그림자를 여성에게 투사하며 오로지 비난과 비판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배신감으로서의 내면의 그림자

내가 진정 죽이고자 했던 여자는 동거했던 여자처럼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여자들’이었어요, 제 사건에서 그 여자를 빼 놓고는 범죄행각이 성립이 안돼요, 저의 살인들을 결과로만 보지 않고 원인을 본다면 그 여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여자는 벼랑 끝에 선 나에게 시퍼런 비수를 들이댄 사람이예요,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인성마저 모두 앗

아가 버렸으니까요.

그 사람의 행동에 극도로 동화되어 그렇게 무자비한 행동들이 계속되었지만 단언컨대 그런 여자가 밤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한 **제2의 유영철은 또 나옵니다. 이지러지고 음성적이었던 저의 여성 교제도 잘못되었**고 사람 만나는 것에 신중하지 못했던 나의 우매함이 더 크지만, 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깨닫기는커녕 결혼 운운하며 남자들에 상처 주는 걸 재미삼아 다니고 있을 그 여자를 생각하니 분노가 다시 이네요** (이은영, 2005: 74).

- 2004. 10. 13. 유영철 -

“내가 진정 죽이고자 했던 여자”라며 여자에 대한 불신과 반목, 증오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사람의 행동에 극도로 동화되어”라고 하며 그 사람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그렇게 무자비한 행동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어릴 적 어머니와 계모에게 억눌려 있던 분노의 그림자가 동거녀에게 투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깨닫기는커녕”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 없이 여전히 그런 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 운운하며 남자들에 상처 주는 걸 재미삼아 다니고 있을 그 여자를 생각하니 분노가 다시 이네요.”라고 격분하는 것은 동거녀를 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억울함마저 보인다.

“이지러지고 음성적이었던”자신의 어둡고 열등한 그림자를 인식하고 있지만, “제2의 유영철은 또 나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행동과 주장이 타당하니까 조심하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편지에서는 여성에 대하여 그림자를 투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무자비한 행동들이 계속되었다.”는 면에서 파괴성을 보이고 있으나 “**분노가 다시 이네요.**” 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여성을 향하여 투사된 열등한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에 언급할 편지에서도 그림자의 투사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투사 대상 역시 여성이다. 그러나 위의 편지와는 달리 그림자를 인식하였으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2004년 11월 4일에 작성한 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그림자의 투사와 파괴성

동거녀와 관계에서도 나에게서는 무의미한 나날이 많았다.....내가 원했던 건 사람과 사람의 정(情)이었고 그 여자가 원한 건 돈 이었다.

내 학력과 전과와 이혼남의 전력을 알아 버린.....정(情)이 아닌 돈만 요구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사칭으로 불법 단속(?)은 계속 병행해야만 했다.

사회부조리가 낳은 나의 24시간의 불안을 충족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피한 살인뿐이었을까?**.....물론 마지막 선택은 **자살**이었다.....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정말 너무나 **한심한 짓거리였다**.....빈부의 차이는 있다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그런대로 살 만한 형편이었음에도 왜 그 같은 분노로 못 참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만행까지 자행하게 된 것인지. 몇 번 얘기했지만.....내가 악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했고 내 자신이 살생으로 피폐해져 가면서도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몰랐던 것 같다. 얼마나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버렸으면....

(이은영, 2005: 126).

-2004. 11. 4. 유영철-

어렸을 때 계모에게 학대당했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으며 부인에게 이혼을 당한 것은 유영철에게 여성에 대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내 학력과 전과와 이혼남의 전력**”이라는 사회적 굴레와 이것을 알고 “**정(情)이 아닌 돈만 요구하는**” 동거녀는 박탈감과 좌절감을 더욱 극대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실제로 경찰사청으로 불법 단속(?)은 계속 병행**”하였다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림자의 파괴성을 볼 수 있다.

“**과연 불가피한 살인뿐이었을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묻고 있으며 “**마지막 선택은 자살**”이었다는 것은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괴를 시도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심한 짓**”이라며 “**왜 그 같은 분노로 못 참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만행까지 자행하게 된 것인지.**”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려움이 나 죄책감을 몰랐던 것 같다.**”는 것은 자신이 좀 더 빨리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 편지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 그림자 이론에서의 창조성과 파괴성 중 “**불법 단속(?)은 계속 병행해야만 했다.**”라는 부분과 “**자살**”의 선택에서 파괴성이 나타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극복에 대한 언급은 후회나 아쉬움으로 비춰지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제 2 절 유영철 범죄심리 분석 결과

1. 사회집단의 그림자투사로 인한 어긋난 선택

집단의 투사는 집단의 개인에 대해서도 나타는데, 예를 들면 ‘집단 따돌림’이 그러하다. 자신의 숨기고 싶은 부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상대에게 그림자를 투사하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그리고 집단은 개인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 혐오감,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자가 개인 무의식 차원에서 투사될 때에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지만, 집단적인 그림자를 투사할 경우에는 투사의 상대방을 ‘벌레 만도 못한 인간’, 또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처럼 느끼게 된다(이부영, 1999: 92).

다음의 편지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편지들과 달리 위와 같은 그림자의 집단적 측면의 투사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사례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2004년 11월 7일에 작성한 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사람 사는 게 뭔데? 지들이나 나나 죽으면 끝나 버리는 인간이 과연 뭔데? 왜 자기들은 웃고 난 울어야 했는데? 왜 자기들은 편하고 난 괴로워야 했는데? 누군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었겠냐? 그래 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 가난이 죄가 되는 이 나라에서 이렇다 할 학벌도 내세울 ‘뺨’도 없는 날 사람들이 경멸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내 가족은 선(善)이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악(惡)으로 생각했다고? 그럼 있는 자들은? 가진 자들은 어땠는데? 자기들이 속한 집단의 우월성은 주장하면서 없는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 짓는 그들은 어땠는데?

자기들이 속한 그 부(富)의 집단은 항상 옳거나 정상이고, 없는 자들의 집단은 항상 그르며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눈빛마저 그런 눈초리로 보는 진정 그들은 어땠는데?(이은영, 2005: 135).

-2004. 11. 7. 유영철-

“왜 자기들은 웃고 난 울어야 했는데?”라고 묻고 다시 “왜 자기들은 편하고 난 괴로워야 했는데?”라며 재차 묻는 것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와 이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에 대하여 강하게 분노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군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었겠냐?”라며 불우했던 가정환경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은 자기의 탓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 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라며 격분하는 것은 가난으로 인한 좌절감이 그의 가치체계를 더욱 더 비관적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가난이 죄”라고 하며 소외계층으로서의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나라”는 모든 것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다 할 학벌도 내세울 뻔도 없는”것은 그의 열등한 그림자의 모습이기도 하며 콤플렉스이기도 하다. 이런 자신을 “사람들이 경멸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은 가난을 이유로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난은 자기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자신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진 자들은 어땠는데?”그들도 역시 자기와 방식만 달랐을 뿐 똑같았다는 것이며, “자기들이 속한 집단의 우월성은 주장하면서”자신과 같은 소외계층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없는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 짓는 그들**”로 인해 자신도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어땠는데?**”라는 것은 소외계층으로서 소속감이 결여된 것에 대한 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편지에서는 거꾸로 사회집단의 그림자가 유영철에게 투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자를 집단적인 차원에서 표출하게 될 때 그것은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으로 된다.

융의 그림자이론에는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이 있는데 위 편지에서는 전반적으로 집단적 투사 현상을 받아 소외계층으로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격분만 하고 있는 상처 입은 유영철의 자아를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그림자의 창조성과 파괴성, 그리고 극복성 모두 드러나 있지 않으나 부정성, 열등성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왜곡된 자기실현

자기실현이란 자기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나의 모든 정신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발휘하며 통합하는 것이다. 우리 정신활동의 무한한 가능성이 무의식 속에 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기실현은 그러한 것들을 살려서 자기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것이다(이부영, 2014: 93).

이러한 자기실현은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하여야만 비로소 자신의 삶에 주어진 과업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이 자기실현의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훌륭한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음으로 인한 상실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부모의 탓, 동료의 탓, 남편이나 부인의 탓, 자식들의 탓, 혹은 사회의 잘못으로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싶어진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쓰라림과 아픔에 직면해서 사용하는 아주 인간다운 자기방어이나 이로써 그 사람의 자기실현은 근본적인 벽에 부딪친다(이부영, 2014: 93).

다음의 각각 2004년 12월 24일, 2004년 9월 4일, 2004년 11월 21일, 2004년 9월 30일에 작성된 편지에서는 그림자를 인식하였으나 스스로 이를 억압하여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유영철의 자아를 엿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2004년 12월 24일에 작성된 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언젠가는 친구들 속에 다시 속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키우며.....
가난하다고, 예술고를 못 간다고, 창피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로,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 괜찮다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 된다고, 그러니 자존감을 가지라고....그렇게 나 자신에게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길로 가는 나를 보고 그만하라고 신경질적인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이를 앓다 묻고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살인의 씨앗 같은 마음이 시작되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이은영, 2005: 205).

-2004. 12. 24. 유영철-

“가난하다고”하며 느낀 소외감, “예술고를 못 간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 이로 인해 “창피해 하거나”하는 열등감을 이유로 “원망하지 않기로”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내면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길로 가는 나를 보고”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림자에 사로잡힌 것을 알 수 있다.

“신경질적인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라는 것은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무기력한 자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앓다물고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자신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자아와 그림자가 동일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살인의 씨앗 같은”어두운 그림자는 결국 사회와 여성들에게 투사되어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편지에서는 용의 그림자이론에서 창조성과 파괴성 중 파괴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극복하려는 의지는 보였으나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의 2004년 9월 4일에 작성한 편지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첫 징역을 받을 때.....법정에 섰을 때 손에 조그마한 목(木)십자가 하나를 쥐고.....그러나 전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십자가를 부러뜨리며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으며 점점 분노로 가득 차면서 저는 부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분노에 찬 저의 행동표출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이은영, 2005: 47).

-2004. 9. 4.유영철-

“**목심자가를 부러뜨리며 하나님을 등지는**”좌절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되어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픔을 겪으며**”무기력한 상태에서 격분만 하고 있는 상처 입은 자신의 자아를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절망과 좌절은 “**점점 분노로 가득 차게**”만들었고 이로 인해 “**부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성적 결단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오직 분노에 찬 저의 행동표출만이 모든 걸 해결해줄 줄 알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 자신의 상황에서는 별도의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분노에 찬 저의 행동표출**”을 마치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는 듯이 말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분노에 찬 분풀이로 보인다. 왜냐하면 진정 그가 분풀이해야 할 사람들인 사회부유층이나 지도층이 아닌 힘없는 노인들, 가난한 노점상, 자신보다 약한 출장마사지사들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림자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에 사로잡힌 것이다.

위 편지에서는 열등한 그림자에 사로잡혀 분노를 표출해 버린 것을 살피볼 수 있으며 이는 파괴성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2004년 11월 21일에 작성한 편지에서는 자신의 그림자는 인식하고 있으나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두운 유영철의 자아를 살피볼 수 있다.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부 파헤쳐 봐도 그것은 허무뿐이더라.
내가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모순과 상처와 결핍과 죽음만이 가득
하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더라는 얘기다. 그래도 가끔
매혹에 홀리듯 미래의 환상에 빠졌지만 그것은 모두 텅 빈 것들이었다.
그게 전부다. 내 지난날과 내 죄악의 씨는 한마디로 절망이었단 말이다.
다.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러냐?(이은영, 2005: 173)

- 2004. 11. 21 유영철-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허무뿐'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대기를
'허무'로 축약하는데 이는 그가 성장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좌절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순과 상처'로서 좌절과 불안을 안겨준 세상은
'결핍과 죽음만이 가득'하여 미래도 없는 '지옥'이라고 한다.

'그것은 모두 텅빈 것'이라며 허무를 강조하고 있고 '내 지난날과 내
죄악의 씨는 한마디로 절망'이었다고 하며 심각하게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러냐?'라고 하는 것
은 여전히 자신의 이러한 절망마저도 사회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편지에서는 내적인 고민은 심각하게 하고 있는 듯 보이나 여전히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그림자를 억압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괴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다음의 2004년 9월 30일에 작성한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
다.

이 악마가 열을 받으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악마를 진정시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입니다. 저는 두어 달 동안 이은영 씨를 통해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도 실상 알고 보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상처와 아픔, 배신의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 온 인생의 낙오자지만 아시다시피 저 또한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행한 일은 잘못되었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백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저의 내면은 아름다웠다고 바보 같은 소리만 합니다. 저를 진정 안다고 하는 지인(知人)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었는데도 왜들 그렇게 계속 얘기할까요? 인간의 내면 전체가 악하고 추한 것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전혀 어떤 면도 사랑할 여지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잘 모릅니다. 그저 ‘희대의 살인마’로 기억할 뿐입니다. ‘몇 명을 죽였나’만 밝히려 들지 진정 왜 죽였는지는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중략) 훗날 제 아이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두렵습니다. 바르게 자랐더라도 모든 사실을 안다면 그 애는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머지않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싹이 생길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좌절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2004. 9. 30. 유영철-

“악마가 열을 받으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분노와 증오의 그림자가 억압을 극복하지 못하고 표출된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악마를 진정시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라며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를 알아주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저처럼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뉘우치는 듯 하였으나 “**나도 실상 알고 보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어쩌다 보니 범죄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처와 아픔, 배신의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해의식으로 가득찬 유영철의 자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인생의 낙오자**”이며, “**아시다시피 저 또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후회나 뉘우침보다는 그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행한 일은 잘못되었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백번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런데도 저의 내면은 아름다웠다.**”라는 억지를 부리며 여전히 자신의 어두운 내면의 그림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간의 내면 전체가 악하고 추한 것만으로 가득찬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전혀 어떤 면도 사랑할 여지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도 어쩌면 이해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사람들이 “**그저 희대의 살인마로 기억**”하는 것과 “**왜 죽었는지는 알**

려고 들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억울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신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망각한 채 오로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가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 아들에게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떠지않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싹이 생길 것”**이라며 걱정하는 것은 자기 역시 유년시절에 아버지에게 느꼈던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편지에서는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만을 생각하고 어두운 면은 인식하지 않으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이해받으려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단편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용의 그림자 이론 중 창조성과 파괴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유영철과 한 월간지의 객원기자인 이은영이 주고받았던 편지를 통하여 유영철의 범죄행위에 나타난 심리상태와 그의 인격을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그가 지나치게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된 심리적·사회적 원인을 분석하여 인간사회의 어두운 반려자인 그림자의 이중인격적 특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유영철의 범죄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용의 그림자의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둘째, 언론기사, 학술지, 판결문 등을 통해 유영철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고, 비록 편지는 아니지만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난 유영철의 그림자를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셋째, 편지내용분석을 통해 유영철의 범죄심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편지에 나타난 범죄자로서의 악의 현상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림자가 유영철의 내면에 있는 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런 방법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영철이 부유층 노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은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반발에서였다.

둘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성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에 계모에게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하였고, 교도소에 수감 중 부인으로부터 일방적 이혼을 당하였으며, 출소 후 전화방 도우미에게 청혼했으나 이혼남에 전과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 여성에 대한 반감을 키운 원인이었다.

즉, 유영철은 자신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연쇄살인자가 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폭력과 범죄는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며 그 그림자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물론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나 불우한 환경이 성인이 된 후의 역할상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설명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폭력을 초래한 맥락은 설명하지만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끔찍한 짓을 저지른다. 몸과 마음에 심한 폭력을 당한 결과로서 범죄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심한 상처를 입고도 성자가 된 사람도 있다. 그림자는 학대받는 환경에서 번창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유영철은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과 가족사가 성인이 된 후에도 어두운 그림자로 내면에 존재하였으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사회와 여성에게 투사한 것이다. 만약 유영철이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를 수용했다면 지금의 유영철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아 뒤에 감춰진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림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그림자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게도 필요한 연습이다. 왜냐하면

유영철의 편지들에서는 사회집단적 그림자 투사의 측면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선입견, 편견, 속단 등에서 바로 ‘나쁜 놈’이라는 단죄가 유도되는 우리사회의 불신풍조는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며 성숙한 사회의 도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당연히 여기고 경쟁에서 밀려나온 자를 패자라고 한다. 타인을 패자로 몰아세우면서 간접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대상에 투사된 우리 마음의 또 다른 반쪽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의 마음을 반추해보는 개개인의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림자의 부정적인 힘을 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아의 뒤에 감춰진 그림자를 인식하고 나의 모습으로 수용해야 한다. 남에게 투사하고 있는 온갖 도덕적으로 취약한 이중성을 먼저 자기 자신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성민. (1998), 「융의 심리학과 종교」, 동명사.
- 이무석. (2013),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 C.G.융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 이부영. (1999),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 : 그림자」, 한길사.
- 이부영. (2004), 「이부영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 정우사
- 이은영. (2005), 「살인중독」, 월간조선.
- 표창원. (2005), 「한국의 연쇄살인」, 랜덤하우스코리아.
- 데이비드 리코 (David Richo). (2013), 김하락 역, 「내 그림자가 나를
 돕는다」, 마디.
- 로버트존슨 (Johnson, Robert). (2005),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
 다」, 에코의 서재
- 비벌리 엔젤 (Beverly Engel). (2008), 「이중인격: 지킬 앤 하이드 신
 드롬」, 미래의 창.
- 융 엮음 이부영 외 옮김. (1993),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2) 논문

- 권성훈, (2014), “사이코패스 유영철 시의 의식 변화 연구”, 「한국범죄

- 심리연구」, 10(2): 5-30.
- 권성훈, (2011), “유영철 글쓰기에 나타난 사이코패스 성격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1: 3-28.
- 김경옥·이수정, (2005),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19(1): 131-149.
- 김상균, (2005), “연쇄살인범의 범죄심리학적 특성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1): 3-36.
- 김성민, (2001), “악의 문제와 그 극복에 관한 고찰 : C. G. 융의 그림자 이론과 홍부전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2: 373-406.
- 김성민, (2009), “서양 연금술에 대한 융의 종교철학적 고찰”, 「철학과 현상학 연구」, 43: 135-16.
- 김수영, (2010), “어거스틴(St.Augustine)과 융(C.G.Jung)의惡에 대한 談論”,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 박선영, (2009), “한국 여성연쇄살인사건의 여성학적 재조명”, 「젠더와 문화」, 2(1): 7-37.
- 박지선·조준태, (2013), “내용분석을 통해 본 사이코패스 관련 언론 보도 실태 및 추세”, 「한국경찰연구」, 12(4): 175-200.
- 박지선·최낙범, (2011), “범죄자 프로파일링 관련 신문기사 내용 분석”, 「한국경찰연구」, (10)3: 35-54.
- 손기표, (2004), “「솔로몬의 노래」의 연금술: 칼 융의 관점에서”, 「현대영미소설」, 11(2): 1-15.
- 오소영, (2011), “연쇄살인범죄의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 오윤성, (2005), “유영철 M(Modus Operandi)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연구」, 9: 177-200.
- 이부영, (2008), “노자 도덕경에서 본 치유의 의미 :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심성연구」, 23(2): 64-80.
- 이부희, (2012), “영화<쌍생아>에서 나타난 내면의 그림자 통합”, 「영화와 문화치료」, 7: 5-46.
- 이상철, (2007), “악 이해에 대한 연구 : C. G. Jung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 이상희, (2012), “융의 심리학과 악에 대한 고찰 : 그림자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 이수정·허재홍, (2004), “잠재적 범죄위험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 「한국심리학회지」, 10(2): 39-77.
- 이용혁, (2005), “연쇄살인범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경찰학연구」, 8: 136-161.
- 이종연, (2009), “Jung의 분석심리학에서 그림자 인식의 중요성과 그림자 통합방법”, 「상담학연구」, 10(3): 1487-1500.
- 이진동, (2006),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 임미혜, (2007),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범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 최고원, (2011), “가다머 해석학과 선입견의 반성 : C. G.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철학논총」, 63(1): 391-408.
- 한유진, (1999), “H.헤세의 소설 「황야의 이리 Der Steppenwolf」 연구: C.G.융의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2. 국외문헌

- Jaffé. A(ed) (1987). Erinnerung, Träume und Gedanken von C.G.Jung Institut Zürich : Rascher Verlag.
- Jung. C. G. (1980). The Archetypes and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Beliefs in Spirit, The Collected Works, vol. 8(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67). Die Dynamik des Unbewussten, G. W. Bd.8, Zürich: Rascher Verlag.
- Jung. C. G. (1951). Aion, Zürich : Rascher Verlag.
- Von Franz. M. L.(1974). Shadow and Evil in Fairytales, Zürich : Spring Publication.
- Von Franz. M. L. (1961). “Das Problem des Bösen im Märchen,” Das Böse, Studien aus dem C .G. Jung Institut Zürich, Zürich : Rascher Verlag, pp.91-126.
- Zilboorg. G. (1941). A History of Medical Psychology, New York: Norton & Co

ABSTRACT

**A Study on Yoo Young-cheol's Criminal Psychology Viewed
through Jung's Shadow Theory
- Focusing on Analysis of 30 Plus Letters**

Kwon Hyun-jung

Department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Graduate School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Dongguk University

The shadow that Jung speaks of is another side of a person that people ignore or exist in the unconscious. In other words, it is the dark side of the ego. It refers to the inferior character excluded from the ego or the negative aspects within the ego such as attachment, anger, greed, jealousy, victim mentality, and selfishness hidden in human nature. However, Jung did not define the psychological contents according to an unchanging framework, but saw such shadows as something that moved and changed. In other words, not

only do shadows have evil functions, but they are viewed to be possible to be changed into creative and good functions.

Then how can the apparently destructive, dangerous and negative effects of shadows be converted to creative ones? The key lies in how much one is interested and works on finding the unconscious of their ego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the shadow. When one realizes this, changes in conscious occur and the negative effects of shadows can be retired.

Yoo Young-cheol became a serial killer because of his psychology of resistance against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society and because of his personal experiences such as underprivileged home environment and severance of human relations.

It is analyzed that the reason why Yoo Young-cheol targeted rich elderly was not for money, but as his resistance against the structural inconsistencies of society. The crimes resulting from such structural contradiction of society were his expression of frustration against society in which he aims at living a better life, but is unable to do so because of the various restrictions in reality, and thus the targets of his crimes were unspecified people.

It is assessed that he targeted women such as those working in massage parlors and phone sex lines because of his hate and animosity against women because he was physically and mentally

abused by his step-mother when he was young, divorced by his wife while he was serving time in prison, and after proposing to a phone sex worker upon being released from prison, who turned down his proposal because he had already been married in the past and had a criminal record.

These were the actions of Yoo Young-cheol's shadow who had a skewed personality due to his resentment against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society, his underprivileged childhood, and poor growth environment such as not having social relations. But on the other hand, our society's tendency for mutual distrust that blindly convicts that person as a 'bad man' due to prejudice, bias and jumping to conclusions and that he would certainly be up to no good most likely would have played a part in this. We take competition in our capitalistic society as natural and view those bumped out of the competition as losers. By branding others as losers, we are indirectly committing murder. In other words, the problem regarding Yoo Young-cheol's case should be the common responsibility of each and every person making up society. In order to fix this, we must first recognize what our shadows shown in the target that we criticize, curse and ridicule, and become individually conscious of it.

The Bible teaches not to judge others. This means to first find all of those dualities that are unethical, but projected on another person.

Members of society should strive not engage in behavior that projects their negative shadows on others.

